

## **한국뇌연구원,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단과 MOU체결**

- 치매 극복 공동 협력연구 강화기로 업무협약 체결
- 국가치매책임제와 미래 뇌연구 활성화를 위한 상호 노력 강화

- 한국뇌연구원 (원장 서판길)은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단 (단장 목인희, 서울대 의대 교수)과 29일(목) 오전 10시 한국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치매극복을 위한 공동협력연구 강화를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.
- 양 기관은 초고령사회 등으로 인한 치매 극복 공동협력 연구를 강화하고, 치매로 인한 국가 사회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.
  -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△ 혁신적 치매 연구주제 발굴 및 공동연구 협력 △ 최첨단 뇌연구 인프라 공동 활용 △ 뇌연구 빅데이터 구축 및 관련 제반연구 협력 및 상호 양 기관 발전을 위한 협력 강화 등 다각적 노력을 해 나갈 계획이다.
- 한국뇌연구원 서판길 원장은 “초고령 사회로 치매를 비롯한 다양한 퇴행성 뇌질환이 사회적 큰 문제로 대두되는 현실에서 양 기관이 협력하여 「국가치매책임제」 구현에 기여하고, 미래 첨단 뇌연구를 활성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” 며 “이번 협약으로 한국뇌연구원은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단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, 이를 기반으로 치매극복을 위한 연구에 더욱 더 정진하겠다” 고 말했다.



한국뇌연구원 원장 서판길(우측)과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단 묵인희 단장(좌측)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.